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</h1>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			2018.5.22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전 요 섭(02-2100-2950)	담 당 자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954)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 목 : 한국경제 5.23일자 “금융위, ‘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’ 추진 않기로” 제하 기사 관련

< 기사 내용 >

- ☐ 한국경제는 5.23일자 “금융위, ‘시중은행 지역대출 의무화’ 추진 않기로”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‘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의무화’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”, “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에 따른 영향을 검토한 결과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실무 차원에서 방침을 정했다”,
 - “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내주는 시중은행엔 인센티브를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.”, “지방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시중은행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”하고 있다고 보도

< 해명 내용 >

- ☐ 금융위원회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‘지역재투자 제도 도입’을 추진하고 있으나
 - 구체적인 제도 실행방안에 대하여는 정부 및 유관기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